

# 이상소설 「12월 12일」의 ‘허무주의’ 연구

최윤정\*

## || 차례 ||

- I. ‘허무주의’의 징후와 그 의미
- II. 서사를 구성하는 두 겹의 허무주의
- III. 근대를 가로지르는 ‘이상’의 허무주의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이상의 첫 작품인 소설 「12월 12일」의 허무주의에 대한 연구이다. ‘허무’라는 단어는 라이트모티프로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근대 도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이성이나 근대문명에 대한 ‘이상’의 근원적 사유를 상징적으로 표기하는 기호라 할 수 있다. 여러 작품들에서 이상은 ‘근대’를 병들어버린 황무지, ‘공포의 성채’로 인식했다. 이는 근대문명과 자본주의적 메카니즘, 그리고 근대지식 등에 의해 삶이 파괴되어가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식민지 도시, 모조 근대 한 가운데서 인간들은 현실을 회피하거나 철학적 향락주의나 무관심 무력감으로 삶을 공허하게 흘려보낸다. 「12월 12일」의 서사는 근대적 삶의 허무함이 근대의 중심 가치들에 의해 배태되는 것임을 드러낸다. 이로부터 ‘허무주의’는 근대 전복의 징후가 된다. 근대적 중심 가치들에 의해 발생하는 병리적 현상들을 실존적으로 자각하면서 삶의 허무는 기존의 근대적 가치들을 파괴하며 창조적인 재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다. 「12월 12일」의 서사는 근대적 삶의 ‘허무’를 ‘허무’로, 비판적으로 직시함으로써, 근대의 중심 가치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했던 ‘이상’의 이상적 사유, 즉 사유의 지향점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 이상, 「12월 12일」, 허무주의, 자본주의, 근대문명, 큰-타자, 불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 I. ‘허무주의’의 징후와 그 의미

‘이상’의 소설 『12월 12일』<sup>1)</sup>은 이상의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두 가지 엇갈리는 평가를 받아왔다. 첫 작품이니 만큼 아직 작품으로서는 미성숙한 면모가 있다는 평<sup>2)</sup>과 이상의 문학 전반을 규정짓는 출발점이자 귀결점이라는 평<sup>3)</sup>이다. 전자는 『12월 12일』이 소설로서는 다소 엉성하고 진부하여 서사적 긴장성을 가지지 못한 미숙한 작품임을 제기하는 것이며, 후자는 이 작품이 이상 문학 전반을 이루는 이상문학의 고유특성과 정신을 내장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후자의 논의들은 서사의 미성숙을 난해성으로 인식하고 자전적인 개인사에 의한, 즉 사소설적

1) 이상 문학의 이성적 합리성을 초월하는 그 특유의 분열적 언어양식과 그 분열성에 기초한 욕망의 문제로부터 정신분석학적인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김승희, 『이상 시 연구』, 보고서, 1998, 신범순, 『이상문학에 있어서의 분열증적 욕망과 우화』, 『국어국문학』103, 국어국문학회, 1990 등), 기하학적인 숫자나 도형, 영향관계에 따라 수학, 건축학, 미술학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식민지 시대 사회, 역사, 문화의 아이콘으로 작용함으로써 사회학적·역사학적, 또는 문화학적 맥락에서 읽히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접근이 이상 문학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한 반대편 연구에서 이상 문학의 시초 작품이라 할 수 있는 『12월 12일』의 연구는 그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는 않다. 특히 ‘죽음’과 관련하여 비극적 운명론으로 단정하는 기존 논의들은 이상 문학이 포괄할 수 있는 사유의 폭을 너무 협소하게 제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그동안의 제한된 연구 지평을 확장하는 하나의 단초로서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2) 권영민, 『이상 텍스트 연구』, 뿔, 2009, p.273.

대체로 『12월 12일』을 미성숙의 서사로 논의하는 것은 “작품의 완성도라는 측면에서만 볼 경우 전반부와 후반부 시점의 불일치, 등장 인물들의 성격과 행위의 비논리성, 사건 발생의 우연성 등 많은 결함을 지니고 있다.”(신주철, 『이상 작품에서의 ‘신’과 기독교(교)의 문제』, 『외국문학연구』제20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5, p.141)는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3) 이어령, 『이상문학의 출발점』, 『문학사상』제36집, 1975, p.283.

김윤식, 『이상연구』, 문학사상사, 1987, p.17.

독해를 통해 해석을 시도한다. 이에 본고는 미흡한 서사성으로 단순하게 해석되거나 또는 이상문학 고유의 난해한 정신성으로 해석되어 자전적 개인사를 대입시켰던 기존의 논의로부터 출발한다. 근대서사에 미달한다는 작품 평이나 난해한 정신성을 극복하기 위해 자전적 개인사로 해석하는 논리<sup>4)</sup>는 ‘이상’의 서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영성한 플롯과 개연성 없는 사건과 돌연한 죽음이나 결말 등 근대문학의 관점에서 서사의 기본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오히려 근대서사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으로 자전적 개인사로 해석되기 보다는 시대정신을 드러내는 미학원리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12월 12일』의 돌연적이고 영성한 사건전개가 아무 맥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도지향의 근대문명이나 근대지식체계 그리고 ‘돈’과 관련된 근대의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하는 일관된 사건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근대 자본주의 메커니즘의 개입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에 의해 근대적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보여주는 서사전략으로 근대에 대한 정신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양한 사건들이 근대문명 시스템, 특히 ‘돈’과 관련되어 개연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돈’이 작동하는 근대의 메커니즘에 의해 인간의 삶이 ‘허무주의’적으로 추락해가는 과정이 『12월 12일』의 일관된 서사 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의 ‘허무주의’는 탈근대적, 근대 초극적 시대정신을 드러내게 된다. 『12월 12일』에는 텍스트 전체에 걸쳐 아주 많이 반복되는 라이트모티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허무’라는 단어이다. 이 ‘허무’는 근대적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시대정신으로 『12월 12일』의 반복적

4) 김윤식은 이상이 소설 <12월 12일>을 허구적 자서전 성격의 글로 계획했던 것을 수정했다고 판단했다(김윤식 엮음, 『李箱문학전집2』, 문학사상사, 2001, p.148).

서사양식으로 표출된다. 기존의 논의들에서 ‘12월 12일’의 반복은 극복할 수 없는 비극적 운명의 상징적 의미로 해석되곤 했다<sup>5)</sup>. 이러한 논의들은 자살충동에 따른 죽음의 의식이 『12월 12일』이라는 서사의 주된 내용이라고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죽음에 작용하는 ‘허무주의’의 원인이나 의미, 또는 서사에 작용하는 논리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sup>6)</sup>. 본고는 『12월 12일』의 서사를 통해 근대의 ‘허무주의’를 탐색하는 논의로, ‘12월 12일’이 ‘돈’으로 삶을 구조화하는 근대가 파생시킨 ‘허무주의’를, 매번 반복적으로 극복하는 양식으로 기능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12월 12일’의 반복적 구조를 통해 이 서사는 근대적 허무에 저항하는 생의 의지를 강렬하게 추동시키는 니체적 ‘허무주의’<sup>7)</sup>를 드러내게 된다고 본 논의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허무주의는 인간의 삶을 삶 외적인 바깥세계로부터 규제하는 모든 종류의 규범과 강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삶의 존재 당위성을 부여해주던 삶 외적인 세계인 신과 그 신의 자리를 대신했던 근대의 ‘이성’세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가치를 無로 인식하는 수동

5) 김주현, 『이상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집, 한국현대문학회, 1994, pp.152-177.

6) 『12월 12일』의 ‘허무주의’에 대하여 언급한 논의로는 김주현의 『이상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나 최선영·이진송의 『이상의 『12월 12일』에 나타난 주제의식과 서사생성원리 연구』(『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59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등이 있지만, 이들 논의들은 불행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 파국의 서사로 읽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12월 12일』 서사 읽기 방식에서 멀리 나아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

7) 니체의 허무주의의 본질은 삶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허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긍정성에 있다(서영조, 『니체의 허무주의 정치철학』, 『사회비평』제12호, 나남출판사, 1994, p.339). 신의 자리를 새로운 이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근대의 시도들은 삶 자체의 무가치함을 불러오는 소극적 허무주의를 배태한다. 이러한 소극적 허무주의의 본질을 꿰뚫고 근대의 시도들을 전복시키고 삶을 전환시키는 것이 니체의 본질적 허무주의이다.

적 허무주의의 세계이다. 이는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다. 예를 들어 『12월 12일』에서 기존의 도덕적 가치 체계에 의해 검열되는 X는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유산 받은 돈 때문에 자신을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괴로워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삶을 재단하는 도덕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허위이며 허상이다. X에게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는 근대적 도그마인 도덕적 ‘이성’은 ‘돈’이라는 물질에 기반 한 허상일 수 있는 것이다. ‘이성’의 도그마에 의해 몰락해가는 근대적 삶을 인간 존재의 ‘생의 의지’로 파괴해 나아가는 것이 니체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허무주의라 할 수 있다. 『12월 12일』은 근대 ‘이성’에 기초한 가치들이 병리현상으로 확장됨에 따라 근대적 ‘이성’이 부정되고 부인되는 ‘허무주의’를 표출한다. 이는 ‘이성’의 無가치 또는 反가치를 드러내는 수동적 ‘허무주의’이다. 이러한 수동적 허무주의를 인간 존재의 힘의 의지, 생의 의지를 통해 극복해가려 했던 것이 X를 통해 표출된 능동적 ‘허무주의’이다. 근대의 과정에서 인간은 도덕적 존재가 됨으로써, 삶을 부정하거나 자신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문명에 길들여질 수 있다. 근대 ‘이성’의 합리성에 길들여짐으로써, 인간은 문명의 노예 또는 병리적 존재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대화의 도구로써 몰락해가는 인간 존재를 통해 『12월 12일』은 근대의 허무를 드러낸다. 이 수동적 ‘허무’의 인식으로부터 이 ‘허무’를 파괴하는 능동적 허무주의가 작동한다. 수동적 ‘허무’로부터 탈주하는 능동적 ‘허무주의’ 작동방식은 개체의 생의 의지에 기반 한 것으로 반근대적인 동시에 탈근대적인 서사의 구조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 Ⅱ. 서사를 구성하는 두 겹의 허무주의

근대의 자기모순성과 자기파괴성을 진지하게 고찰하고 있는 것이 이상의 「12월 12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근대의 자기모순성과 자기파괴성에 대한 간과는 근대를 구성하는 이성, 문명, 지식, 과학 등에 대해 의심하고 회의하는 허무주의, 심지어 부정하고 거부하는 극단적 허무주의를 불러온다. 근대에 대한 회의는 근대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비극적 삶을 배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12월 12일」의 서사는 ‘그(X)’의 일대기를 통해<sup>8)</sup> 근대적 삶, 계몽과 진보라는 이름으로 확장되고 있는 근대적 중심 가치들에 대해 회의하고 의심함으로써 근대의 허무주의적 색채를 드러내게 된다. 여기서 작가(이상)는 ‘영점에 가까운 인간’을 언급한다. “인간으로서의 당연히 가져야 할 감정의 권위를 초월한 그야말로 아무 자극도 감격도 없는” 영점에 가까운 인간은 인간 본연의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의 인간이다. 근대의 확장에 따라 인간은 인간성이 고갈된 현장에서 문명의 진화만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에 근대에서의 허무가 깔리게 되는 것이다. 인간을 소외시킨 문명은 더 이상 인간의 문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러한 근대에 대한 허무 표지는 ‘이상’의 소설 「12월 12일」에서는 몸의 훼손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생명력, 인간본성의 상실은 근대성의 확장에 따라, 즉 인간이 근대적 인간으로 강화되어 감에 따라 몸은 반비례적으로 훼손되는 기표가 됨으로써 근대적 가치들에 대한 ‘허무’ 인식을

8) 심상욱은 졸라와 ‘이상’을 관련지으면서 「12월 12일」서사가 ‘그(X)’의 일대기를 통해 식민지 생활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논의한다(심상욱, 「『十二月 十二日』: 이상과 졸라와의 제휴」, 『비평문학』 제37호, 한국비평문학회, 2010, p.327). 그에 대해 본 논의는 X가 식민지적 삶보다는 ‘돈’이라는 ‘자본’에 얽힌 현실의 비극성을 주된 이야기로 확장하고 있다고 보고 ‘돈’에 의해 작동되는 근대의 구성원으로서의 X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심화하게 된다. 근대의 확장은 훼손된 몸의 기표를 통해 근대 자체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인간존재는 자신의 훼손된 몸을 실존적으로 자각함으로써 근대로부터 자기를 구원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지점이 니체가 말하는 수동적 ‘허무주의’가 능동적 ‘허무주의’로 전환되는 순간이다. 수동적 ‘허무주의’가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고 무화시키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수동적 ‘허무주의’를 ‘허무’로 인식하여 기존의 가치를 전복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또 다른 ‘허무주의’이다. 이렇게 『12월 12일』 서사는 근대의 중심 가치들에 의해 세계가 작동됨에 따라 인간의 삶이 비극적으로 반복되는 허무주의를 표출한다<sup>9)</sup>. 『12월 12일』의 서사에서 돈의 자본화나 가속적인 문명의 속도에 의한 몸의 훼손이나 인간본성의 상실, 인간관계의 파괴 등으로 치닫는 반복적인 극단적 상황연출은 근대적 가치들에 의해 삶이 무력화되고, 삶의 의지를 상실하는 허무주의의 계기가 되면서 근대적 중심 가치들에 의해 삶이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순간이 인간이 모든 가치의 탈가치, 가치 전도를 실행할 가능성을 배태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허무주의는 새로운 가치설정과 가치전환의 계기로 인간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다<sup>10)</sup>. 이 허무주의는 니체가 말한 능동적 허무주의로 근대적 가치를 전복시키는 하나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서사는 ‘12월 12일’의 반복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절망적으로 반복되고 순환된다는 사실,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는 비극적 사실을 인지시킴으

9) 이런 측면에서 남상권은 『12월 12일』의 서사에는 육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심각한 병적 징후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남상권, 『『12월 12일』의 글쓰기와 감정 이입』,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p.367.)

10)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백승영 역, 『책세상』, 2005, p.203.

로써 삶의 허무, 즉 수동적 허무주의를 제기한다. 기존의 논의들에서 ‘12월 12일’을 ‘죽음’이나 파국, 또는 비극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sup>11)</sup>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그러나 서사 속에서 X가 마지막 세 번째 “12월 12일”에 “아……인제 죽을 때가 돌아왔나 보다! 아니 참으로 살아야 할 날이 돌아왔나 보다!”라고 외치고 있듯이 ‘12월 12일’은 X가 살기 위해, 또는 새로운 삶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우주의 시작을 위해 떠나거나 돌아오는 시간으로써 세 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서사가 이 반복을 통해 언급하고 싶었던 것은 비극적 운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삶의 허무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리고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한 인간의 생애의 의지이며 이 의지를 통해 인간은 보다 큰 우주적 삶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나만의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타자의 삶과 관련된 보다 큰 삶의 틀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삶과 죽음의 대립적 의미 층위를 벗어나 삶과 죽음을 포괄한 우주적 삶의 순행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죽음과 삶이 대척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기하며 또 다른 생명과 삶을 위해 죽음이 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삶과 죽음은 하나의 연장延長이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이 또 다른 어떤 삶에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근대적 가치에 갇힌 인간은 비극적 운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허무’의식을 갖게 된다. 그러한 허무에 바탕을 둔 삶은 매번 절망과 좌절, 죽음의식을 추동시킨다. 그러나 이 서사는 거기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근대적 가치들에 의해 파괴되는 인간성과 훼손된 몸으로부터 기존의 근대의 가치가 파괴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11) 김주현은 이상의 작품이 패러디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쓰여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고펜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연관시켜 ‘12월 12일’을 죽음의 시작과 죽음의 종결로 파악하고 있다(김주현, 「이상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집, 한국현대문학회, 1994, p.160).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근대적 가치들의 파괴로부터 창조적 파괴의 능동적 ‘허무주의’가 생성되고 있으며 ‘12월 12일’의 반복으로부터 근대적 메카니즘에 저항하고 생의 의지를 확장시키는 탈근대적인 ‘허무주의’가 생성되고 있는 것이다.

### 1. 훼손된 몸으로 표기되는 근대의 허무주의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식민지 조선은 자본에 따른 경제성이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12월 12일』에 나타나는 모든 관계의 어그러짐은 ‘돈’의 개입과 ‘돈’이 자본이 되어감에 의해 심화된다. 그 돈의 개입은 결국 인간의 본질 자체를 변형시키고, 인간관계의 어그러짐의 원인으로 작동하여, 문명을 형성하는 자본과 인간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놓여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게 된다. 우선 ‘돈’으로부터 소외된 서사 초기의 궁핍한 X는 아내와 아이의 죽음이라는 생명 파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X는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날 생각을 한다. X는 조선민족의 유량의 대표적 공간인 간도나 만주로 떠나지 않고 자본과 문명의 중심인 제국 일본으로 떠난다. 이는 앞으로 X의 삶에 자본, 즉 ‘돈’과 같은 근대문명의 영향이 점점 깊게 작용할 것을 암시한다.

나는 지금에 한 사람의 훌륭한 한 숙련 직공일세. 사회에 처하여 당당한 유직자일세. 고향에 있을 때 조금 배워둔 塗布業이 이곳에 와서 끊어져 가던 나의 목숨을 이어 주네. 씨먹을 줄 어찌 알았겠나? 지금 나는 ○○조선소 건구도공부에 목줄을 매고 있네. 급료 말인가? 하루에 1원 50전 한 달에 45원. 이 한 몸뚱이가 먹고 살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 아니겠나?(생략) 나의 주린 창자를 채우고 남은 돈의 전부를 술과 그리고 도박으로 소비해 버리고 마는

것일세. 얻어도 술! 잃어도 술! 지금 나의 생활이 술과 도박(밖에)이 없다 할진  
덴 그야 말로 전혀 제로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sup>12)</sup>.

영양부족과 飢寒이 주된 원인이 되어 X와 단둘이 살던 어머니마저 돌아  
가신다. 이는 ‘돈’으로부터 소외된 X의 처지가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에 X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즉 ‘돈에 목줄을 매는 근대자본주의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가는 자신을  
돌아보며 삶에 허무를 느끼게 된다. 근대 상공업의 한 축에 참여하며, X는  
나름대로 근대 숙련공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근대사회의 한  
일원으로 적응해갈수록 그의 삶은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에 수동적으로 이끌  
리는 상태가 되며, ‘돈’에 절대적으로 목을 매는 처지가 되며, 돈의 전부를  
술과 도박으로 탕진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또 다른 작동 원리인 소비적인  
삶의 방식에 몰들어 간다. X는 이러한 메커니즘에 익숙해질수록 몸과 마음  
이 피폐해져버리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는 ‘제로’에 가까운 삶이다. 이것  
은 서사 앞부분에서 언급한 모든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초월한 그야말로  
‘영점에 가까운 인간’과 같은 것이다. ‘돈’에 목줄을 매는 처지가 되면서 X  
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허무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X는 근대적  
가치의 척도인 ‘돈’이라는 물질을 얻기 위해 노동의 고역과 피로를 감수하  
지만,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보람 없이 보내고,  
삶에 의욕을 잃고 술과 도박에 그 돈을 소비해버리는 허무주의적 삶으로  
빠져들어 가게 된다. 이러한 X의 삶을 통해 비춰지는 근대는 공허한 폐허  
의 공간이 된다. 근대사회의 구성원으로 점차 근대적 삶의 양식에 적응해  
갈수록, 즉 근대문명의 세례에 노출될수록 X의 몸은 병리적으로 훼손된  
상태가 된다. 이는 근대의 병리현상을 인간의 몸이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

12) 이상, 『이상전집1』, 가람, 2005, p.48.

한 몸의 병리적 표기는 근대가 지닌 공허한 폐허적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는 근대적인 것의 가치가 폐기되어야 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훼손된 몸을 통해 근대현실을 폐허로 인식하는 시선은 파멸에 찬 근대문명을 문제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근대의 비극적 삶을 구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탑재하게 된다. 이러한 근대(문명)에 대한 ‘허무’를 인간의 몸에 새김으로써 근대문명과 인간의 전도된 가치-돈과 물질, 문명을 위해 인간이 파괴되어가는 전도된 상황을 다시 전복하는 것이 『12월 12일』의 서사이다.

직업이 직업이라 밤을 낮으로 바꾸는 생활이 처음에는 꽤 괴로운 것이었으나 지금 와서는 그것도 면역이 되어서 공휴일 같은 날 일찍 드러누으면 도리어 잠이 열려 오지 아니하는 형편일세. 그러나 물론 이러한 생활이 건강상에 좋지 못할 것은 명백한 일이니 나로서 나의 몸의 변화를 인식하기는 좀 어려우나 일상에 창백한 얼굴빛을 가지고 있는 그 소녀들이 썩 불쌍해 보이네<sup>13)</sup>.

“악마와 같은 이 세상에 이미 도전한 지 오래인 나로서는 이 평온무사한 단일한 직선 생활이 싫증이” 나서 나고야로 옮겨온다. ‘세상이 허무’라는 인식을 항상 지니고 살지만, X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도전하고 ‘엽세’에 ‘결사적 투쟁’을 결행하는 사나이이다<sup>14)</sup>. ‘허무’의 의식은 어떤 것에 대한 무가치의 표시이거나 어떤 것을 無化시키는 것만이 아니다. ‘허무’를 인식함으로써, 인간이란 존재는 기존의 가치를 전도시키고, 역전시키는 니체적인 ‘창조적 파괴’를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이데올로기적 위조를 폭로하고 모든 전래의 가치 표상을 무효화시키는 ‘허무주의’<sup>15)</sup>는 기존의 가치를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의 창조를 도모하는 그러한 과정을 포괄

13) 이상, 앞의 책, p.54.

14) \_\_\_\_, 앞의 책, p.63.

15) 이보 프렌첼, 『니체』, 강대석 역, 한길사, 1999, pp.184-189.

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허무주의’로의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근대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서 X는 나고야에서는 식당에 쿡으로 ‘목줄을 매고 있는데 그러한 삶에서 X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형편에 처해 있다. 이 식당은 X에게 불면증을 제공한 병리공간이면서, 근대의 병리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다. 이 식당은 “먹기 위한 식당이 아니라 놀기를 위한 식당”이라고 X는 조소한다. “맨해튼과 화이트홀스에 신경을 마비시켜 가지고 난조의 재즈에 취하며 육향분복한 소녀들의 붉은 입술을 보려고 모여드는” 버리지의 무리들은 근대사회를 구성하는 전계급을 망라한 부랑아·셀러리맨·학생·노동자·신문기자·배우·취한 등이다. 근대가 낳은 이 다양한 계급들은 근대문명에 취해 버리지들이 되어가고 있다. 이 식당에서 쿡으로 일하는 X는 밤에만 일하기 때문에 밤과 낮이 바뀌는 피로운 생활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보니 “나는(X) 밤새도록 이 어지러운 소음을 귀가 해지도록 듣고” “더없는 흥분과 피로를 느끼면서 나의 육체를 노예화시켜”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식당의 에피소드는 M에게 보내는 편지 시리즈들 중 가장 긴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즉 X의 삶의 경과가 긴밀하게 이어지는 다른 서신들과 달리, 이 편지는 생략되어도 X의 삶의 맥락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의 에피소드로 설정해서 중요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은 식당이라는 장소를 통해 근대의 향락과 소비, 퇴폐와 음란을 들추어내어 인간이 버리지나 노예로 추락하고, 피로와 긴장 속에서 인간의 육체가 피폐해져 감을 언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 근대의 공간은 더 이상 편리하고 유익한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병들게 하고 정신을 쇠약하게 하는 유해한 공간이라는 허무인식을 구체화함으로써, 근대의 삶의 양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삶의 세계를 지향해야 할 의지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을 위해 진화하는 근대문명이 아니라 근대문명을 구성하는 다양한 물질과 욕망의 체계를 위해 인간이

파괴되어가는 시대적 흐름의 허무를 읽어내는 것이다. 근대문명은 부정되어야 할 가치가 되며, 이 부정으로부터 새로운 문명의 탐색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브레이크를 놓았네. 동시에 나의 토로도 무서운 속도로 나의 앞에 가는 토로를 육박하는 것이었네. 나는 토로 위에서 필사적으로 부르짖었네. “야! 앞의 토로야! 브레이크를 놓아라. 충돌된다. 죽는다. 내 토로에는 사람이 없다. 브레이크를 놓아라…….”(생략) ‘절뚝발이.’ 여태껏 내 몸 위에 뒤집어쓰워져 있던 무수한 대명찰 외에 나에게에는 또 이러한 새로운 대명찰 하나가 더 뒤집어지는 구나. 어디까지라도 감감한 암흑에 지질리워 있는 나의 앞길을 건너다 보며 영원히 나의 신변에서 없어진 등불을 원망하는 것일세. 절뚝발이도 살 수 있을까? 절뚝발이도 살게 하는 그렇게 관대한 세계가 지상에 어느 한 귀퉁이에 있을까?<sup>16)</sup>

이 장면은 근대문명과 인간의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트럭이라는 문명의 기기는 무서운 속도로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문명에 올라탄 인간은 그 문명을 제어하지 못하고 문명의 속도에 생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근대문명의 속도는 잔인하게 X의 몸을 훼손한다. 죽음에서 살아왔지만, X는 그 문명과의 충돌 흔적을 몸에 새겨야만 했다. 그 흔적은 X의 삶에 치명적인 상처가 된다. 근대문명은 편리한 도구로서 인간의 손아귀에 들어오지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간을 훼손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근대문명이 지닌 이러한 위협은 근대문명에 대한 가치전도의 허무의식을 낳는다. 근대문명의 속도에 열광했던 근대인들은 그 속도에 의해 파괴되는 삶, 절뚝발이가 되고서야 그 문명의 허구를 인식하게

16) 이상, 앞의 책, pp.58-62.

되는 것이다. ‘절뚝발이’가 된 X는 자신의 앞길을 밝혀줄 등불을 잃은 것이다. X는 이제 아무 희망도 전망도 미래도 없는 캄캄한 암흑의 길을 가야한다는 삶의 허무를 깊게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근대문명에 의한 몸의 훼손은 근대문명이 얼마나 인간의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위협적인 도구인지를 실존적으로 드러내는 양식이라 할 수 있다.

- ① M군은 실망하였다. 업은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마이너스의 존재였다. ‘저런 사람이 필요할까? 아니 있어도 좋을까?’ 그러나 ‘유해무익’이라는 참을 수 없는 결론이었다<sup>17)</sup>.
- ② “아버지! 아버지는 왜 다른 아버지들과 같이 돈을 많이 좀 못 벌었습니까?”<sup>18)</sup>
- ③ “해외의 형은 어찌면 돈도 좀 보내주지 않는담.”<sup>19)</sup>
- ④ 거대한 재산을 얻은 것이 어찌 그다지 기쁜 일이 아니겠다고 생각하겠는가. 이러한 나의 생각은 세상을 떠난 그를 생각하기만 하는 데에서도 더없을 양심의 가책을 아니 받는 것도 아니겠으나<sup>20)</sup>
- ⑤ ‘혹시 내가 속지나 않은 것일까…… 사람은 모두 다 서로 속하려고 드는 것이니까. 그러나 설마 그들이……나는 그들에게 진심을 바치리라.’<sup>21)</sup>
- ⑥ “형님에게 신세 끼치고 싶지 않소” 그들의 회화는 일상에 이렇게 간단하였다. 그리고는 그 뒤에 반드시 길다란 침묵이 끝까지 끼어들고 말고는 하였다. 때로는 그가 눈물까지 흘려 가며 T씨의 소매에 매달려 보았으나 T씨의 따뜻한 대답을 얻어들을 수는 없었다.<sup>22)</sup>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2월 12일」의 서사 전반에서 인물들이 근대에 대

---

17) 이상, 앞의 책, p.72.

18) \_\_\_\_, 앞의 책, p.75.

19) \_\_\_\_, 앞의 책, p.75.

20) \_\_\_\_, 앞의 책, p.81.

21) \_\_\_\_, 앞의 책, p.107

22) \_\_\_\_, 앞의 책, p.120.

한 ‘허무’인식, 근대적 가치들에 대한 ‘허무주의’를 가지게 되는 가장 큰 계기는 ‘돈’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이다. ‘돈’이 병원을 설립하는 자본으로 투자되는 서사 진행, 즉 ‘돈’이 ‘자본화’되는 일련의 과정은 인물들 간의 관계가 파괴되는 양상을 더욱 심화시킨다. 『12월 12일』의 인물들은 ‘돈’의 작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기 몸을 훼손하게 되고, 더 나아가 서로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형국으로까지 나아간다.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으로 작동하는 근대문명 속에서 근대인들은 점점 더 ‘돈’을 중심으로 세상의 가치를 재단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물질화되거나 죄책감에 자아학대의 병리현상을 경험하거나 인간 서로 간의 불신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등 인간성이 마모되고 결속력이 단단했던 친밀한 인간관계가 해체되는 부조리를 경험하게 된다. ①에서 볼 수 있듯이 M은 ‘돈’을 소비만 하는 ‘업’을 마이너스적 존재라 규정한다. T를 대리했던 M은 근대를 작동시키는 ‘돈’을 통해 업을 제어하는 상징계의 아버지 법이라 할 수 있다. 이때 M을 통해 우리는 근대 사회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예술에 대한 근대적 규범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예술은 한가로움이나 휴식에 관계하는 것으로 양심 없는 사람이나 나태한 사람들이 몰두하는 것<sup>23)</sup>으로 비경제적인 마이너스적 존재의 일이 된다. M을 통해 업을 통제하려는 서사 장면에는 예술을 통제하는 근대적 상징계의 아버지 법, 즉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이 내재해 있다. 그런 마이너스적 존재가 이 세상에 ‘유해무익’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다는 M의 논리는 근대의 자본 중심의 철저한 경제적 논리와 다르지 않다. ②와 ③에서는 ‘돈’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또는 주지 않는 혈육에 대한 원망이 드러난다. ‘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혈육은 무능한 존재 원망의 대상이 될 뿐인 것이다. ④에서는 X가 불로소득으로 얻은 거액을 두고 ‘양심

23) 김창준, 「니체의 데카당스 개념과 토마스 만의 『트리스탄』」, 『외국문학연구』 제4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2, pp.32-34.

의 가책'을 가지게 되는 것을 드러낸 부분이다. 이러한 양심의 가책을 숨길 수 없는 X는 기차에서 처음 만난, 알지도 못하는 신사에게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 이 고백을 통해 죄책감을 덜어 내려 하지만, 신사의 “당신이……슬쩍 이렇게 했다는 말인 것이오그러.”라는 한 마디에 그는 길게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기 행위를 부정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심하게 자신의 부도덕성을 자각하고 괴로워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서술자가 신사의 얼굴에 냉소와 조롱의 빛이 가득했다고 서술하는 것은 X의 행위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이었음을 드러내는 텍스트바깥의 실제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자신을 보살피준 은인의 거액을 아무 거리낌도 없이 소유한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슬쩍’한 것, 즉 도둑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양심의 가책을 가지게 된 X도 자신이 ‘돈’이라는 물욕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돈’은 인간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 자기 학대를 감행하게 하여 자기부정으로까지 몰고 가는 것이다.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과 같은 인간의 내면화는 문명에 의해 인간이 앓는 질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sup>24)</sup>. 이러한 사항들이 근대가 인간들을 파괴하게 하는 지점들이며, 이러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근대의 일그러진 면모로부터 근대적 삶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며 근대의 허무가 비롯될 수 있음을 이 서시는 증명하는 것이다. ⑤와 ⑥에서는 거액을 가지게 된 X가 모든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는 과정과 형제라는 혈육의 관계가 돈의 개입에 의해 완전히 해체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렇게 근대를 움직이는 자본, 즉 돈은 인간의 몸으로부터 정신을 훼손하고 인간의 물질화와 자기 파괴와 부정의 상황을 연출하고 인간간의 불신으로 관계를 악화시키고 해체하는

24) 최순영, 『니체와 도덕의 위기 그리고 기독교』, 철학과 현실사, 2012, pp.144-147.

근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는 근대의 허위와 허구를 드러내고 근대적 삶의 허무를 제기한다. 근대문명을 위해, 또는 근대문명에 의해 도구화되고 물질화되는 인간은 인간의 본연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간과 문명이 가치 전도된 상황 자체이다. 이러한 가치가 전도된 상황을 인간의 몸의 훼손과 인간의 몰화와 인간관계의 어그러짐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이 서사는 근대로 비롯된 삶의 허무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허무 인식은 근대적인 것들을 무화시키고 제로화시키는 또는 무력화시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 데서 창조적 파괴성을 가진다. 근대적 ‘허무주의’ 삶을 재생의 삶으로 전환시키는 니체적인 창조적 허무주의는 ‘12월 12일’이라는 상징적 기표에 의해 『12월 12일』의 서사에서 반복적으로 생성된다.

## 2. 생애의 의지를 확장하는 탈근대적 허무주의

이 서사 텍스트 속에서 반복되는 ‘12월 12일’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언급되어 왔다. 생명에 대하여 욕망하나 운명에 무참히 패배하는 것, 운명에 패배하듯 원점인 ‘12월 12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이 작품의 구성원리<sup>25)</sup>로 파악하고 언급해왔던 것이 기존의 해석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들은 ‘12월 12일’을 생명에의 의지를 억압하는 상징계에 속하는 것으로 그날의 반복은 숙명성에 대해 절망하는 강박 관념으로 규정하고 있다<sup>26)</sup>. 여기서 ‘12월 12일’의 그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12월 12일’이 반복적이라는 것과 연관되며, ‘12월 12일’을 과거와 연관짓기 때문이다. ‘12월 12일’

25) 김윤식, 『이상연구』, 문학사상사, 1987, p.17.

26) 송기섭, 『내적 인간의 구현 방법』,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4, p.217.

의 세 번의 반복은 표면적으로 보면, ‘떠남’과 ‘귀환’, 그리고 ‘죽음’의 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이질적 사건은 반복이라는 표지를 통해, 하나의 의미로 통합된다. 반복의 의미는 동일성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그 세 사건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 전체를 세 개로 분할 구성하는 ‘12월 12일’은 텍스트 전체 사건들이 귀결되는 ‘죽음’과 관련하여 비극적 운명을 반복하는 것으로 해석했던 것이다<sup>27)</sup>. 그것은 ‘12월 12일’을 과거 시간과 관련하여 종결된 하나의 사건으로 의미화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의 ‘12월 12일’은 아내와 아이의 죽음 이후 고향을 떠나게 되는 X의 ‘떠남’을 초점화하는 것이며, 두 번째의 ‘12월 12일’은 일본에서 갖은 고생 끝에 불구의 신체로 돌아오는, 즉 X의 ‘절뚝발이’로서의 귀환에, 세 번째의 ‘12월 12일’은 파산과 혈육의 죽음 이후의 X의 자살적 죽음에 방점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때, ‘12월 12일’은 비극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삶에 대한 ‘허무주의’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X가 왜 떠나야 하는지, 왜 돌아오는지, 그리고 왜 죽는지를 좀 더 중요하게 탐색해야 한다. 이 ‘12월 12일’의 시간은 근대적 병리적 삶을 치유하기 위해 개입하는, 치료를 위한 가장 적합한 최선의 카이로스의 시간<sup>28)</sup>으로 인식된다. 다시 말해, 과거의 사건과 관련하여 비극적 운명의 시간이나 허무의 순간들을 치유하기 위해 개입되는 최적의 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12월 12일’의 시간을 계기로 X는 절망의 삶을 재생의 삶으로 전환

27) 강용운, 『이상문학 생성의 기원』, 『한국학연구』제18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p.189.

이와 같은 논점의 논의들은 ‘12월 12일’의 반복이 더 이상 출구를 찾지 못하고 패배의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이라 해석한다.

28) 카이로스는 고대 그리스 의학에서 사용된 개념으로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시점, 즉 개입해야 하는 최선의 순간을 의미한다(김홍중, 『문화적 모더니티의 역사사학』, 『경제와 사회』제70호, 비판사회학회, 2006. 여름호, p.91).

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X가 ‘12월 12일’에 무엇을 위해 떠나는지, 무엇을 위해 돌아오는지, 무엇을 위해 죽는지 등 그러한 미래지향적 탐색을 통해 ‘12월 12일’이 반복되는 심층적 의미를 고찰해야 한다.

“M군, 나는 이제 나의 지계의 한편짜 짐을 내려놓았다. 나는 아무래도 여기서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 죽으나 사나 고향을 한번 뛰어나가 볼 테야…….”

“그야……그러나 늙으신 자네의 어머니를 남의 땅에서 고생시킨다면 차라리 더 아픈 일이 아니겠나……?”

“그러나 나는 불효한 자식이라는 것을 면치 못한 지 벌써 오래니깐.”

드물게 볼 만치 그의 눈이 깊숙이 숨벽이고 축축히 번쩍이는 것이 그의 굳은 결심의 빛을 여지없이 말하고 있는 것도 같았다<sup>29)</sup>.

산후의 발병으로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젓먹이마저 죽은 어미의 뒤를 따라 떠나간 후, X는 고향을 떠날 결심을 한다. 어머니를 남의 땅에서 고생시킬지라도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한 X는 고향을 떠나고자 한다. 아내와 아이를 잃은 X는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삶에의 결연한 의지가 “숨벽이고 축축히 번쩍이는” 그의 눈 깊숙이에서 하나의 빛으로 번쩍이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만큼 X는 살아보려는 마음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우인 T씨를 찾아가서도 “너나 나나 여기서는 살 수 없으니 우리 죽을 셈치고 한번 뛰어나가 벌어보자…….”고 설득하기도 하는 것이다. 아내와 아이의 죽음으로 삶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X는 더욱 이 절망의 상황을 뚫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는 것이며, 이는 비극적 운명을 체념적으로

29) 이상, 앞의 책, p.40.

살아가는 ‘허무주의’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비극적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저항적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첫 번째 ‘12월 12일’의 떠남이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북국 생활 7년! 그동안에 나는 지적으로나 德的으로나 많은 교훈을 얻은 것은 사실일세. 머지 아니한 장래에 그전에 나보다 확실하게 더 늙은 절뚝발이의 내가 동경에 다시 나타날 것을 약속하네. 그곳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따뜻한 나의 식어빠진 인생을 조금이라도 덥혀줄 바람이 불 것을 꿈꾸며 즐기치게 정말 악마까지도 나를 미워할 때까지 즐기치게 살겠다는 것도 약속하네. 재성한 나이니까 물론 과거의 일체 醜相은 곱게 청산하여 버리고 박물관 내의 한 권의 역사책으로 하여 가만히 표지를 덮는 것일세. 모든 새로운 광채 찬란한 역사는 이제로부터 전개할 것일세. 하면서도, ‘절뚝발이가?…….’ 새로이 방문하여 오는 절망을 느끼면서도 아직 나는 최후까지 즐기치게 살 것을 맹세하는 것일세. 과거를 너무 지껄이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면 장래를 너무 지껄이는 것도 어리석은 일일 것일세<sup>30)</sup>.

‘절뚝발이’가 된 것에 의한 좌절보다, 또 그러한 유사 죽음의 순간, 신체가 훼손된 과거를 되돌아보고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X는 “최후까지 즐기치게 살 것을 맹세한”다. 이러한 연장에서 ‘절뚝발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12월 12일’은 그러한 즐기찬 장래의 삶과 관련된 날짜이다. ‘절뚝발이’가 오히려 즐기찬 삶의 의지를 지피고 ‘새로운 광채 찬란한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계기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sup>31)</sup>. ‘절뚝발이’로

30) 이상, 앞의 책, p.62.

31) 성인수는 ‘12월 12일’을 신간회 사건과 연계해서 해석하기도 한다(성인수, 『이상의 시 <브와뜨·브와뜨즈에서의 ‘십자가’의 해석』, 『국어국문학』 제166집, 국어국문학회, 2014, p.310-317). 이러한 측면이 좀 더 객관적인 논리를 획득하게 된다면 『12월 12일』 서사의 ‘12월 12일’은 민족적 의지의 반복 표지로 읽힐 수 있다.

‘12월 12일’에 돌아온 그는 M과 혈육과 대면하는 대신 ‘신사’를 따라갈까 잠시 생각한다. ‘절뚝발이’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 세상에 병어리나 귀머거리처럼…… 어쨌든 그런 병신이 차라리 나올 것이야…….”라는 절망적 자책의 X의 고백은 두 번째 ‘12월 12일’을 삶의 의지가 좌절된, 비극적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X의 삶을 규정짓는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절뚝발이’는 문명과의 충돌로 발생한 ‘죽음’을 극복한 실존적 표지이다. 오히려 ‘절뚝발이’가 됨으로써 X는 보다 더 생애의 의지를 가지게 되고, 의학을 공부하겠다는 장래의 희망을 가지게도 되는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온 날 밤, 즉 ‘12월 12일’에 X는 ‘DECEMBER 12’라는 벽에 걸린 조그마한 일력을 본다. 이 장면에 대하여 서술자는 “이 숫자는 확실히 그의 일생에 있어서 기념하여도 좋을 만한(그 이상의) 것인 것 같았다.”라고 논평한다. 그리고 곧이어 X는 ‘12쪽’을 떼어낸다. 그 후 그는 혈관에 피가 한 방울 두 방울씩 돌기 시작하는 것을 느낀다. 완전히 편안한 상태가 된 상황에서 그는 ‘생명은 의지다.’라고 되뇌는다. X는 ‘절뚝발이’가 된 이후 시시때때로 자신의 불구의 몸을 의식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X는 ‘염세에 대한 결사적 투쟁’을 이어간다. ‘12월 12일’은 불구의 몸이 되었다는 과거적 사건이 지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불구의 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염세에 결사적으로 투쟁하여 삶을 갱신해가는 미래의 시간과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12쪽’을 떼어낸 ‘12월 12일’ 이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절뚝발이’라는 불구의 신체가 되어 돌아오기까지의 ‘12월 12일’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 돌아온, 미래를 염두에 둔 ‘12월 12일’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12월 12일’은 X가 기획한 앞으로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시간으로 더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는 말 안 듣는 몸을 억지로 가만히 일으켰다. 그리하고는 손을 내밀어 ‘12’쪽을 떼어냈다. ‘별써 간 지 오래다.’ 머리맡에 벗어 놓은 옷옷의 포켓 속에서 꺼내어서는 그 일력 쪽을 집어넣었다. 마치 그는 정신을 잃은 사람이 무의식으로 하는 꼴로 천장을 향하여 눈을 짝 각고 누웠다. 그의 혈관에는 인제 피가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돌기를 시작한 것 같았다. 완전히 편안한 상태였다. 주위는 침묵 속에서 단조로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았다. ‘생명은 의지다.’ 무의미한 자연 속에 오직 자기의 생명만이 넘치는 힘을 소유한 것 같은 것이 그에게는 펍 기뻐다. 그때에 펍 가까운 곳에서 닭이 홰를 탁탁 몇 번 겹쳐 치더니 청신한 목소리로 이튿날의 첫 번 울음을 울었다. 그 소리가 그에게는 얼마나 생명의 기쁨과 의지의 힘을 표상하는 것 같았는지 몰랐다<sup>32)</sup>.

두 번째 ‘12월 12일’은 새로운 생명의 의지가 시작되기 위한 복선이다. 죽음을 경험하고 생애의 의지를 더욱 강렬하게 가지게 된 것처럼, ‘12월 12일’은 새로운 시작의 밝은 내일을 위해 저무는 어둠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이 어둠과 죽음의 시간은 비극적 시간이 아니라 생애 의지를 불러오는 새벽의 시간, 날이 밝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인 것이다. ‘죽음’으로 종결되는 시간, ‘죽음’이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의지’로 전이되는 시간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게 되면, ‘12월 12일’은 비극적 운명의 삶이라도 삶이 지속되는 이유, 삶을 지속시켜야 하는 이유, 삶을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시간이 되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의 ‘12월 12일’은 X가 ‘절뚝발이’라는 절망과 좌절의 상황을 딛고, 의사가 되어 자신 같이 병신이 된 몸을 고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돌아오는 시간이다. 여기서의 삶의 의지는 보다 적극적으로 타자를 향한 삶의 의지까지 포괄하는 생애의 의지인 것이다. 첫 번째의 ‘12월 12일’이 궁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기만의 생애 의지와 관련된 떠남의 시간이었다면, 두

32) 이상, 앞의 책, pp.109-110.

번째의 ‘12월 12일’은 M과 T, 또는 업의 삶과 병든 고향의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그들의 생의 의지와도 연관된 귀환의 시간이라고 파악된다. 따라서 ‘12월 12일’은 죽음의 부정적 시간이 아니라 생애의 의지와 밀접한 시간이라고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인제 죽을 때가 돌아왔나 보대! 아니 참으로 살아야 할 날이 돌아왔나 보대!”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 사람은 그의 그 모양을 조소와 경멸의 표정으로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야 최후로 새 우주가 그의 앞에는 전개되었던 것이다. “여보십시오!” 그는 수작하기 곤란한 이 자리에서 이렇듯 입을 열어 보았으나 별로 그 사람에 대하여 할 말은 없었다. 그는 몹시 머뭇머뭇하였다. “왜 그러오?” “저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12월 12일?” “네!” (생략) 그는 지금 모든 세상에 끼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수받지 못하였던 모든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새로운 우주의 명랑한 가로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다.(생략) 대자유를 찾아서, 우주애를 찾아서 그는 이미 선택된 길을 걷고 있는 데 다름 없었다<sup>33)</sup>.

이 마지막 세 번째의 ‘12월 12일’은 X의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죽음’으로 의미화된다. 그러나 이 ‘죽음’은 단순히 한 인간의 종말을 의미하는 죽음과는 다른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보이듯이 X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새 우주를 여는 작업과 관련된 것이며, 이 ‘죽음’은 비극적 운명의 사슬로서만 인식되던 삶의 반복을 보다 폭넓은 관점으로 포착하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대 우주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죽음은 비극적 운명의 한 조각일 뿐이다. 그 ‘죽음’은 우주의 명랑한 가로를 향하기 위한 절차이며, 대자유를 찾아 나서기 위한 단계이다. ‘이상’이 죽음을 이렇게 보는 것은 한 인간의 존재를 우주와 연결된 보다 큰 틀에서 보기 때문이다.

33) 이상, 앞의 책, pp.162-163.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종결짓는,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에 의해 비극적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적 존재로서 삶과 죽음을 포괄하고 삶과 죽음을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는 존재,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연장으로 인식하는 디오니소스적 존재이다. 이런 존재는 보다 큰 세계를 포착할 수 있는, 자아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자아의 삶과 이어진 많은 존재들의 삶까지도 사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 3.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두 가지 방식

근대의 자본화, 즉 ‘돈’에의 경도는 몸을 훼손시키고 인간성과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근대적 삶으로 점점 깊숙이 유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대적 삶의 과정을 볼 때, 근대의 진보란 하나의 허위이며 과장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오히려 근대화가 진행될수록 인간의 몸은 더욱 훼손되고, 인간관계는 마모되며, 인간은 자기부정과 자기학대의 심화를 경험하게 된다. 식민지 근대의 제도적 양식들의 묵중한 무게 밑에서 파편들로 으깨지거나 일그러진 것이 당시 우리민족의 자화상이었다<sup>34)</sup>. 그러한 식민지의 모조 근대에 대해 『12월 12일』은 ‘근대’를 구성하는 어느 것도 어떤 가치나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는 정신성의 심화, 즉 ‘허무’의식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 『12월 12일』의 서사를 그러한 ‘근대’에 대한 허무의식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삶의 ‘허무’로만 읽게 되면, 이 서사는 근대의 병리 현상만을 짚어낸 서사로만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은 여기서 더 나아가 ‘근대’로부터 파생된 ‘허무주의’를 창조적 파괴의 지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길을 탐색하게 된다. 근대에 대한 ‘허무’를 인식했다는 것은 ‘전복’해야 할

34) 신범순, 『이상 문학 연구』, 지식과 교양, 2013, p.55.

하나의 사건으로 ‘근대’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근대’ 극복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허무주의’는 창조적 파괴의 시대정신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12월 12일’은 그러한 근대의 허무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향점으로 방향을 전회하는, 사유를 전도시키는 반복적 지점이다. 근대문명과 자본의 작용에 의해 인간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허무주의’의 확장을 제어하는 하나의 기제로서 ‘12월 12일’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삶의 의지’를 재생시키는 시간의 반복으로서 ‘12월 12일’은 지속적으로 삶의 의지를 꺾고 방해하는 ‘근대’적 삶의 양식들, 삶을 허무하게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죽음 사건의 연속 등에 의해 좌절과 절망의 하강국면의 삶, 그야말로 허무주의로 인해 자포자기로 치닫는 삶의 방향성을 절단하고 전도시키는 시간이다. 다시 말해 근대가 파생시킨 허무주의를 반복적으로 파괴하고 삶의 의지를 재생시키는 니체적 허무주의<sup>35)</sup>가 생성되는 시간인 것이다.

결국 나는 때때로 허무 두 자를 입 밖에 헤뜨리며 거리를 왕래하는 한 개 조그마한 경멸한 니힐리스트였던 것일세. 생을 찾다가, 생을 부정했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귀의하여야만 할 나의 과정은-나는 허무에 귀의하기 전에 벌써 생을 부정하였어야 될 터인데-어느 때에 내가 나의 생을 부정했는가……집을 떠날 때! 그때는 내가 즐기던 힘으로 생에 매달리지 않았던가? 그러면 어머니를 잃었을 때! 그때 나는 어언간 무수한 허무를 입 밖에 방사시킨 뒤가 아니었던가? (생략) ‘생을 부정할 아무 이유도 없다. 허무를 운운할 아무 이유도 없다. 힘차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 재생한 뒤의 나는 몸과 마음에 채찍질하여온 것일세<sup>36)</sup>.

35) 파괴 속에서 건설의 미를 찾는 ‘힘’의 생명력을 강조하는 것이 니체적 사유의 일단이다(조은주, 『1920년대 문학에 나타난 허무주의와 ‘폐허’의 수사학』,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5집, 한국현대문학회, 2008, p.24).

‘나’(X)는 아내와 아이가 죽은 후 집을 떠날 때에도 ‘생에 매달리’는 생애의 의지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12월 12일’은 생애의 의지를 가지고 떠난 시간인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의 죽음과 맞닥뜨리고서는 무수한 허무를 입 밖에 방사시키며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삶은 허무하게 인식되었고, 그래서 생을 부정할 이유도 많았다. 그러나 재생 이후, 즉 의사擬死 죽음을 경험하고 ‘절뚝발이’가 된 이후 ‘나’는 오히려 즐기치게 생애에 매달리는, 이전의 자아와 다른 자아가 되고 있는 것이다. 바타유의 에로티즘에 따르면 죽음과 삶은 대립된 형식이 아니라 동일한 현상이다. 바타유는 에로티즘을 “죽음에 이르는 쾌락이다.”라고 했다. 삶에의 강력한 열망, 즉 성적 충동은 죽음의 충동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그 의사 죽음의 경험은 다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X의 마지막 발자취는 삶에의 극단적 열망을 기차에 충돌하는 자기 파괴적 행위로 나타냄으로써, 마르쿠제의 문명에 짓뭇개지는 에로스, 문명에 파괴되는 원초적 삶에의 본능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는 서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문명과 생애의 의지(죽음의 충동)의 충돌을 통해 근대가 과생시킨 문명의 허무에 돌진하는 한 인간의 처절한 결단을 목격하게 된다. 근대문명과 대결하는 인간을 설정함으로써, 『12월 12일』은 허무에 대한 적극적인 파괴적 창조의 정신을 제언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문명과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통해, 문명이 인간의 삶을 무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허무주의가 발원하는 기원임을 드러낸다. ‘12월 12일’은 그러한 가장 어둡고 암울한 문명이 깊게 드리워진 시간이다. 가장 어둡고 암울함이 깊게 드리워진 시간이기에 X는 문득 이 시간을 반복적으로 자각하게 된다. 여기서 ‘12’는 근대문명의 허무한 삶 속

---

36) 이상, 앞의 책, pp.57-58.

에 사로잡힌 문명의 시간을 의미한다. 1931년 (작품제1번)의 ‘+’에서 ‘이상’은 “나의 방의 시계 별안간 十三을 치다. 그때, 호외의 방울소리 들리다. 나의 탈옥의 記事”라고 썼다. 근대의 메커니즘에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는 시간은 십삼이다. 따라서 십이는 근대문명이 깊게 드리워진 가장 어두운 시간이며, 자유의 탈옥 직전의 시간이다. 탈옥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12’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갇혀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근대의 메커니즘에 사로잡힌 우리 삶을 자각하는 시간이 ‘12’이기에 이 숫자의 시간은 탈옥을 위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다. 인간의 삶을 허무하게 무력화시키는 근대문명의 파괴를 위한 자살적 결단이 내려지는 마지막의 ‘12월 12일’은 새로운 창조적 삶을 위한 탈옥, 탈근대적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는 X의 자살적 죽음이 삶의 종식이 아니라 또 다른 탈근대적 삶과 연결된 보다 긍정적인 삶의 의지라는 것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의 사유의 일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허무주의’ 극복이 가능함을 구체화한다.

### 1) 큰-타자<sup>37)</sup>로서의 자기 살해

X는 업의 연인이었던 C로부터 아이를 받아 맡게 된다. 모든 것을 잃은 X는 이 아이 하나만을 안고 황막한 별관길을 헤매다 모닥불 곁에 아이를 내려놓고 기차로 돌진한다. 이 돌진은 죽음과 종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종막의 연장인 삶과 또 다른 시작과 연관되는 것으로 근대의 허무를 극복하는 상징적인 방식이 된다.

37) 상징계적 큰-타자는 거세위험을 가지고 복종과 종속을 강요하는 권력자의 이미지로 드러난다(김승희, 『코라 기호학과 한국시』,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8, p.319).

그는 C간호부의 내미는 젓먹이를 의식 없이 두 손으로 받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얼고 식어 빠진 그의 손에서 전하여 왔다. 그때에 그는 누워 있는 C간호부의 초췌한 얼굴에서 10여 년 전에 저 세상으로 간 아내의 면영을 발견하였다. 그는 기쁨, 슬픔이 교차된 무한한 애착을 느꼈다<sup>38)</sup>.

아기를 보호하고 지키려 했던 X의 마지막 발자취는 생명에의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러나 곧 그는 아기를 놓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파멸의 길을 향한다. 남겨진 아이는 서사 도입부에서 언급되었던 X의 죽은 아이의 반복이라는 인상을 준다. C는 남겨진 아이의 어머니로 짐작된다. 이 여성은 X에게 자신의 부인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C로부터 바아든 아이에게 X는 상징적 아버지라는 위치를 부여받는다. 아이에게 X는 상징적 아버지로 기존 가치체제, 법으로 작동하는 큰-타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sup>39)</sup>. X가 업에게도 상징적 아버지였던 것처럼, 그런 지점에서 X는 아기로부터 분리된다. 근대 인간들의 삶에 가장 주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돈’이라는 자본이다. 따라서 ‘돈’을 대어주던 X는 T를 대신해 업의 삶을 가장 크게 제어하는, 아버지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X의 업의 삶에의 규제와 간섭은 업의 자살과 T의 파멸, 가족의 해체로 이어진다. 따라서 근대성이 기입된 존재인 X는 근대적 가치체제로 무장된 아버지의 법과 같은 상징적 존재로 새로운 생명, 이제 막 삶을 시작하는 아이에게는 분리해낼 필요가 있는 위험한 인물이 된다. 이런 점에서 X의 자살 사건은 큰-타자적 존재를 거세하는 것으로, 근대로부터 파생되는 인간(X)의 비극적 운명을 창조적으로 절단하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 되며, 이전의 가치체계로부터

38) 이상, 앞의 책, p.149.

39) 신범순 선생님도 “김기림에게 홍옥의 상징이 일종의 반외디푸스적 의미를 갖는 것처럼 이상 역시 아버지적 질서로부터의 일탈이라는 기호체계를 광범위하게 보여준다.”고 보았다(신범순, 위의 책, p.64.).

비롯되는 또 다른 생명의 비극적 운명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아……인제 죽을 때가 돌아왔나 보다! 아니 참으로 살아야 할 날이 돌아왔나 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 사람은 그의 그 모양을 조소와 경멸의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야 최후로 새 우주가 그의 앞에 전개되었던 것이다<sup>40)</sup>.

X가 아이를 모닥불 가에 남겨 놓고 죽음을 결단하는 순간, 아이는 아버지의 범으로부터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X의 죽음은 아이의 새로운 삶의 시작과 연관되며, 또한 X의 그동안의 근대적 양식에 기초한 삶과 단절되는 순간으로 X의 새 삶이 시작되는 상징적 순간도 되는 것이다. 이렇듯 삶과 죽음, 미래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과 같은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은 19세기 근대성에 대한 비판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sup>41)</sup>. 삶과 죽음을 이분법적 단절된 시각으로 보는 근대의 이성적 사유나 진보적 시간관은 이 서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드러내는 타자의 삶과 연결되는 자아의 죽음의 결단, 죽음과 우주적 삶을 연계하는 보다 큰 틀의 '삶과 죽음'의 사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는 자아 객체만의 '삶과 죽음', 또는 현세만의 '삶과 죽음'만을 사유하는 근대적 사유방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여기서 '큰-타자'로서의 자기 살해를 통해 X는 다른 존재의 삶과 자기의 삶도 구원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40) 이상, 앞의 책, p.162.

41) 김홍중, 『문화적 모더니티의 역사시학』, 『경제와사회』 제70호, 비판사회학회, 2006. 여름호, pp.96-100.

## 2) ‘불’의 창조적 파괴성

근대로부터 비롯된 허무주의적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은 기존의 가치체계인 상징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서구에서 ‘허무주의’는 기존의 가치체계인 신과 신을 대신한 근대의 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12월 12일』의 서사에서 X나 C를 통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회의가 언급되기도 한다. X가 생각하기에 신은 “자기의 오직 죄 없음을 죽어 가며 변명하는 데 그칠 줄” 모르는 나약한 인간을 만들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사에서 ‘신’은 진실한 신자에 의해 불타는 ‘교회’로 부정된다. X는 신문에서 교회당의 방화사건을 읽고 ‘붕괴되어 가는 역사의 때 아닌 여명을 고하는 것을’ 느낀다. 기독교는 현세적 삶을 부정하는 근대의 서구적 산물로 인식되는 허무한 것일 뿐<sup>42)</sup>이기에 ‘불’로서 전소된다. 이 서사에 등장하는 신이란 인간 위에 군림해 온 절대자로서의 기독교의 신일 수도 있고 근대 계몽의 깃발 아래 인류의 진보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이성’과 같은 것으로 불 수도 있다<sup>43)</sup>. 그런 의미에서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서구적 근대 산물인 병원(의학)<sup>44)</sup> 또한 이 서사에서 그러한 ‘신’과 더불어 부정되어야 할 ‘이성’의 대표적 표지로서 불태워진다. 『12월 12일』에는 자본이 투입된 근대의 이성적 지식체제로 의학, 즉 병원이 등장한다. X는 병원을 운영하며 ‘돈’을 벌어들인다. 그런데 이 ‘돈’에 의해 인물들의 삶이 하나씩 무너진다. 때문에 모든 인물들의 인생이 허

42) 김승구, 『이상 시에 나타난 기독교 표상에 관한 고찰』, 신범순 외, 『이상 문학연구의 새로운 지평』, 역락, 2006, p.399.

43) 김성수, 『이상소설의 해석-생과 사의 감각』, 태학사, 1999, p.71.

44) ‘의학’이라는 것도 일본의 문명화된 공간으로부터 습득한 것으로 근대의 이성적 산물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 식민성 또한 기입된다는 측면에서(안미영, 『이상소설과 사적공간으로서의 일본』, 『문학과 언어』 제23집, 한국문화융합학회, 2001, pp.327-304) 식민지 근대인들의 삶의 의지를 꺾는 한 양식으로 볼 수 있다.

무하게 일단락된다. X가 대어주는 ‘돈’에 의해 업은 경조부박한 도락에 탐닉하여 간호부를 만나 해수욕행까지 결정하고 그 결과 X와의 충돌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의 파멸의 길을 자초한다. 여기서 ‘해수욕 도구’의 불태움은 기존의 가치체계인 상징계를 파괴하는 하나의 장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X는 자신의 동생인 T가 병석에 누워 있는데도, 아들로써 간병도 하지 않고 집에도 들르지 않는 조카 업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차에 자신의 돈으로 여자와 해수욕행을 결행하는 업의 해수욕 도구를 불태움으로써,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업의 행위에 대해 응징한다. 이러한 X의 도덕과 윤리의 가치에 대해 업은 X로부터 다시 구해 받은 해수욕 도구와 함께 불에 타 죽음으로써, X의 기존도덕과 윤리의 응징에 대해 저항하고 반항하는 면모를 보여주게 된다. 이런 지점에서 ‘불’은 구체적인 인간의 삶을 삶 외적인 바깥세계로부터 규제하는 모든 종류의 규범과 강제를 부정하는 ‘허무주의’<sup>45)</sup>, 즉 니체적인 창조적 ‘허무주의’를 이 서사에서 재현하는 상징체로 드러난다.

타오르는 M군과 그의 집, 병원, 그것들에 대하여는 조그만 애착도 없었다. 차라리 그에게는, ‘벌써 타버렸어야 옳을 것이 여지껏 남아 있었지.’ 이렇게 그의 가슴은 오래오래 묵은 병을 떠나 버리는 것과 같이 그 불길이 시원하게 느껴졌다. 다만 한 가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를 건진 것과 같은 쾌감을 그 젓먹이에게서 맛볼 수 있었다<sup>46)</sup>.

‘불’은 문명의 상징이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건네줌으로써, 인간의 문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했다. 『12월 12일』의 서사에서 불에 의해

45) 서영조, 『니체의 허무주의의 정치철학』, 『사회비평』 제12호, 나남출판사, 1994, p.321.

46) 이상, 앞의 책, p.156.

병원이 전소되는 것을 보며 X가 ‘뚝은 병’을 떠나버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은 근대 지식체계의 불합리와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오히려 인간에게 병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X는 다른 사람들의 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업과 M과 T와 관계의 불화를 낳았고, 그 불씨에 의해 업도 T도 M도 X도 불신이라는 병을 키웠으며, 심지어 혈육지정의 인간 본연의 성정을 잃고 업은 자기 분열의 정신병을 앓다가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고, T는 사회 병리현상의 하나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며, 의사인 M은 병이 들어 눕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의학-돈-병원으로 연결된 근대의 지식-자본-문명의 시스템은 근대를 살아가는 X와 그 주변사람들의 삶을 보았을 때, 인간을 해치는 오히려 반문명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 시스템의 모순을 응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불’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불’은 기존의 문명을 파괴하는 상징적 도구이면서 저 프로메테우스의 신화의 문명처럼 새로운 문명의 시작을 동시에 상징하는 도구이다. 불에 의한 근대 시스템의 파괴는 새로운 문명의 창조적 시작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지식체계나 근대 삶의 양식에 대한 전면적인 파괴나 전복을 통해 새로운 문명이 시작될 수 있음을 알리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생각된다. 서사의 이 장면으로 불 때, 그 창조되는 문명의 씨앗은 ‘젓떡이’이다. X는 이 ‘젓떡이’로부터, 즉 기존의 가치체계가 기입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아이로부터 새로운 문명,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는 것이다.

### Ⅲ. 근대를 가로지르는 ‘이상’의 허무주의

본고는 기존의 이상소설 『12월 12일』에 대한 논의들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일반적 평가를 지양하고 있다. ‘이상’의 전기적 사실, 또는 가족사를 바탕으로 한 해석에서 벗어나 텍스트 자체의 심층 분석을 통해 근대 서사의 기본 요건을 결여한 미숙한 문학작품이라는 부정적 평가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삶에 대한 대결에서 패배한 서사라는 의미를 극복하는 측면이 있다.

『12월 12일』서사에는 자기 소멸의식과 현실 초월적 의식이 공존하지만, 결국 X는 비극적 운명의 굴레에 갇히기 보다는 현실을 초월하는 대자유의 우주적 길로 나아가는 결단을 내린다. 즉 근대의 중심 가치에 의해 파괴되는 삶은 근대적 삶에 대한 허무주의를 확장시키며 자기 파괴와 해체의 소멸의식을 불러오지만, 근대적 중심 가치들, 즉 자본화와 속도 지향적 문명이 삶을 위협하고 인간의 몸을 부수고, 인간관계들을 붕괴시키며 인간에 육박해올 때, 인간은 실존적 자각을 통해 오히려 삶에의 의지를 재생시키며 기존의 가치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적극적 허무주의로 나아가야함을 이 서사는 역설하고 있다. 이는 근대의 환금만능의 자본주의 메커니즘<sup>47)</sup>이라는 외적 조건들에 의해 인간의 내적 본질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생애의 의지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인간 내부로부터 외적 조건들을 무력화시키고 동화해내는 자기 극복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sup>48)</sup>. 이렇게 ‘이상’의 첫 서사를 삶이 지속적으로 재생되고 갱신되는 서사로 읽는 것은 이상 문학에 대해 “죽음에의 욕망을 통해 현실로부터의 일탈을 획책하는 게 이상 문학의 본성에 더 가깝다<sup>49)</sup>.”는 냉소적 허무주의에서 촉발된

47) 방민호, 『이상문학의 방법론적 독해』, 예음, 2015, pp.38-86.

48) 최순영, 『니체의 위버멘쉬와 고귀한 삶 그리고 정치』, 『정치사상연구』제16집2호, 한국정치사상학회, 2010. 가을, p.172.

49) 이정석, 『이상의 <지도의 암실>론』, 『우리문학연구』제30집, 경인문화사, 2010, p.358.

부르주아 퇴폐주의라는 비난적 시각을 재고하고, 이 냉소적 허무주의를 파괴하는 능동적 허무주의의 시각에서, 근대를 건너가고 있는 ‘이상문학’을 창조적으로 다시 읽는 작업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이상, 『이상전집1』, 가람기획, 2005.

### 2. 논문 및 단행본

강용운, 「이상문학 생성의 기원」, 『한국학연구』제18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pp.171-194.

권영민, 『이상 텍스트 연구』, 뿔, 2009.

김성수, 『이상소설의 해석-생과 사의 감각』, 태학사, 1999.

김승희, 『코라 기호학과 한국시』, 서강대출판부, 2008.

김윤식, 『이상연구』, 문학사상사, 1987.

김윤식 편, 『이상문학전집2』, 문학사상사, 2001.

김주현, 「이상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 『한국현대문학연구』제3집, 한국현대문학회, 1994, pp.155-177.

김창준, 「니체의 데카당스 개념과 토마스 만의 『트리스탄』」, 『외국문학연구』제4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2, pp.29-52.

김홍중, 「문화적 모더니티의 역사시학」, 『경제와 사회』제70호, 비판사회학회, 2006, pp.89-110.

남상권, 「『12월 12일』의 글쓰기와 감정이입」,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2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pp.345-370.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백승영 역, 책세상, 2005.

방민호, 『이상문학의 방법론적 독해』, 예음, 2015.

서영조, 「니체의 허무주의 정치철학」, 『사회비평』제12호, 나남출판사, 1994, pp.320-344.

- 성인수, 『이상의 시 <브와프·브와프즈에서의 '십자가'의 해석>』, 『국어국문학』제166집, 국어국문학회, 2014, pp.291-327.
- 송기섭, 『내적 인간의 구현 방법』,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6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4, pp.209-232.
- 신범순 외, 『이상 문학연구의 새로운 지평』, 역락, 2006.
- 신범순, 『이상 문학 연구』, 지식과 교양, 2013.
- 신주철, 『이상 작품에서의 '신'과 기독교의 문제』, 『외국문학연구』제20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5. pp.139-156.
- 심상욱, 『十二月 十二日』: 이상과 졸라와의 제휴』, 『비평문학』제37호, 한국비평문학회, 2010, pp.319-337.
- 안미영, 『이상소설과 사적공간으로서의 일본』, 『문학과 언어』제23집, 한국문화융합학회, 2001, pp.287-304.
- 이보 프렌첼, 『니체』, 강대석 역, 한길사, 1999.
- 이어령, 『이상문학의 출발점』, 『문학사상』제36집, 1975, pp.282-284.
- 이정석, 『이상의 <지도의 암실> 론』, 『우리문학연구』제30집, 경인문화사, 2010, pp.347-367.
- 조은주, 『1920년대 문학에 나타난 허무주의와 '폐허'의 수사학』, 『한국현대문학연구』제25집, 한국현대문학회, 2008, pp.7-40.
- 최선영·이진승, 『이상의 『12월 12일』에 나타난 주제의식과 서사생성원리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59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pp.191-217.
- 최순영, 『니체의 위버멘쉬와 고귀한 삶 그리고 정치』, 『정치사상연구』제16집2호, 한국정치사상학회, 2010, pp.167-190.
- \_\_\_\_\_, 『니체와 도덕의 위기 그리고 기독교』, 철학과 현실사, 2012.

**Abstract**

Study on 'Nihilism' of Leesang's novel 『December 12th』

Choi, Yun-Jung

This paper is a study on 'Nihilism' of Leesang's first work 『December 12th』. The word nihility is often appeared as leitmotiv in 『December 12th』. This may be a sign marking symbolically Leesang's underlying reasons on capitalism rational and modern civilization that dominated the modern city. In several works, Leesang was recognized as diseased wasteland and horror stronghold. This is going to be identified as life destroyed by the modern civilization and the capitalist mechanism and modern knowledge. This colonial city, among imitation modern, humans spend to avoid the reality or shed sends the nihility of life by a moment epicurean or helplessness and indifference. The narrative of 『December 12th』 reveals that the nihility of modern life is that gestation by the core values of modernity. From this, nihilism is a sign overturned modernity. The nihility of life should realize existentially pathological phenomena generated by the core values of modern. The nihility of life is the turning point of creative destruction of previous modern values and regeneration of new values. The narrative of 『December 12th』 is critical to face nihility of modern life as the nihility. This shows a world of possibilities to destroy the core values of the modern and to create value of new life. 『December 12th』 can evaluate the work that reveals a Leesang's oriented thinking.

Key Word : Leesang, 『December 12th』, Nihilism, Capitalism, Modern civilization, The Other, Fire.

최윤정

소속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전자우편 : rarebird@yu.ac.kr

이 논문은 2016년 3월 12일 투고되어  
2016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4월 16일 게재 확정됨.